

2019년 6월호

2563 | 2019 6



대한불교조계종 제4교구본사

五臺山子精舍

# 우란분절(백중)기도

백중, 우란분절은 불법승 삼보에 대한 지극한 마음으로 조상과 부모에게 공덕을 쌓고, 불은의 가르침을 주시는 승가의 은혜에 감사를 표하는 불교에 전해 내려오는 큰명절입니다. 오대산 월정사에서는 49일 동안 지장천도 기도와 함께 7일마다 재를 올려서 여러 영가님들의 왕생극락을 발원하오니 여러 불자님들께서는 두루 동참하시어 선망부모형제와 인연 영가님들을 천도하시기 바랍니다.

## “목련아!

음력 7월 15일은 모든 스님들이 여름 안거를 마치고,  
自恣(자자)를 하는 날이라 즐겁게 한 곳에 모이니  
너의 어머니를 천도하여 정토에 태어나게 하리라.”

 백중기도일	<b>입 재</b> 불기 2563(2019). 6. 28 (음 5. 26)
	<b>1 재</b> 불기 2563(2019). 7. 4 (음 6. 2)
	<b>2 재</b> 불기 2563(2019). 7. 11 (음 6. 9)
	<b>3 재</b> 불기 2563(2019). 7. 18 (음 6. 16)
	<b>4 재</b> 불기 2563(2019). 7. 25 (음 6. 23)
	<b>5 재</b> 불기 2563(2019). 8. 1 (음 7. 1)
	<b>6 재</b> 불기 2563(2019). 8. 8 (음 7. 8)
	<b>회 향</b> 불기 2563(2019). 8. 15 (음 7. 15)

 장소 **입재식·회향식** 적광전

 기도, 축원 **수광전** 오전 9시 30분(1재~6재)

 동참비용 **영가 1위당** 10,000원  
**축원 동참금** 50,000원  
**백중 영가등 1위당** 10,000원

\* 백중설판 : 1,000,000원(각 재 상차림 1회) \* 꽃, 과일, 떡 보시 받습니다.

<b>칠월칠석기도</b>	<b>입 재</b> 불기 2563(2019). 8. 1 (음 7. 1)
	<b>회 향</b> 불기 2563(2019). 8. 7 (음 7. 7)
	<b>장 소</b> 삼성각 <b>동참금</b> 10,000원

계좌번호. 농협, 313065-55-000014, 월정사 문의. 원주실, 033. 339. 6600~1

불기 2563년 6



표지사진 산목련

발행일 불기2563(2019)년 5월 31일  
발행인 퇴우 정념  
주간 자현  
편집 디자인 daboDESIGN  
출력인쇄 (주)에드샵컴퍼니  
발행처 대한불교조계종 제4교구 본사  
문수성지 오대산 월정사  
주소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오대산로 374-8  
전화 033-339-6800  
팩스 033-332-6915  
홈페이지 www.woljeongsa.org  
등록번호 평창, 라 00004  
\* 본지에 실린 글과 사진은 월정사의 서면화된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 Contents

- 02 불기2563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어  
오대산은 우뚝하고,  
오대천은 유유히 흘러갑니다.
- 06 탄허스님 방산굴 법어  
대중법어 大衆法語  
- 불교의 利他精神
- 10 오대산을 가다 ㉞  
상원사문수보살과 선재동자  
| 자현스님
- 16 오대산 구전동화  
월정사 탑돌이 이야기 ㉠  
- 여섯 마당의 기원 | 정진희
- 24 화엄오만진신 조성 불사 권선문
- 27 갤러리\_월정사 일기  
걷기명상축제 / 부처님오신날
- 32 사중소식

# 오대산은 우뚝하고, 오대천은 유유히 흘러갑니다

퇴우 정념 스님

불기 2563년 부처님오신날입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지 2563년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곧은 것과 굽은 것, 곧은 것도 아니요, 굽은 것도 아니요. 곧은 것과 굽은 것이 하나로 합하니 예와 지금, 오고 가고, 천지가 바로 한빛으로 이어집니다.

오대산은 우뚝하고 오대천은 유유히 흘러갑니다.

옛 말씀에 역천겁이불고(歷千劫而不古요), 항만세이장금(恒萬歲以長今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가이없는 천겁의 세월이 지나가더라도 남아 옛것이 없고, 만세가 다가오더라도 항상 오늘같이 길이 남는 법입니다. 부처님께서 2643년 전 인도 룸비니 동산에서 태어나셨지만 본래 옛것이 없고 또한 없는 세월이 지나고 새로운 날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길이길이 오늘날 도리를 알 것 같으면 바로 오늘의 이 자리가 부처님 태어나시던 룸비니 동산과 다를 바가 없는 법입니다.



만대윤왕삼계주 萬代輪王三界主

쌍림시멸기천추 雙林示滅幾千秋

진신사리금유재 眞身舍利今猶在

보사군생예불휴 普使群生禮不休

불법의 도리를 전하고 가르치며 팔십 년 동안 쉬 없는 법의 수레바퀴를 굴리시고 사라쌍수 아래서 입멸에 드신지 몇 천 년이 됐는가, 그 때 낚기신 부처님 정골 사리가 이 오대산중 적멸보궁에 모셔져 있습니다. 이 사리는 그때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변함없는 진리의 상징이요, 곧 부처님의 증표입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들이 쉬 없이 머리 숙여 참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법륜을 굴린 부처님께서 온 세상이 옛것과 지금이 구별 없이 모두 연결되어져 있다고 하셨습니다. 시간적으로도 연결되어져 있고, 공간적으로도 연결된 우리의 존재 모습인 것입니다. 이 이치를 바로 깨닫게 되면 삶과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고, 너와 나의 대립과 갈등이 사라져 행복하고 평화로운 세상으로 거듭나는 법입니다.

오늘날 인류가 행복을 추구하고, 평화를 이루어낸다면, 문명을 발전시켜 왔지만 정작 행복하고 평화로운 세상은 구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 인류의 힘은 수천 배로 커졌지만 탐진치라는 삼독의 과도한 욕망과 어리석음, 분노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삼독심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다보니 진정한 평화와 행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는 초연결, 초지능 시대로 편리하고 풍요로움이 넘치는 사회가 올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현재 삼만 불입니다. 많이 행복해졌습니다. 그러나 쉽 없이 평화를 일구어내고 행복을 찾아가야 하는 것 또한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러려면 모든 존재가 연결되어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행동해야 합니다. 나와 너를 분리해 자기중심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어리석음, 갈등과 시비 속에서 일어나는 분노지심을 소멸해야 합니다. 그런 마음을 비워 나라는 에고<sup>ego</sup>의 자의식을 해체하지 않으면 세상에 진정한 평화와 행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문명이 발전할수록 밖으로만 치구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쉽 없이 밖으로 달려가야만 하는 현대 문명 속에서 진정한 자기를 잊어버리고 또 연결된 이 세상에 존재 모습을 망각하기 일쑤입니다. 이런 문명 속에 자기의 내면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 마음을 지극하고 깊숙이 반조하고 성찰해 '나란 누구인가?' 하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자유, 평화, 행복이 주어지지 않는 법입니다. 부처님께서 세상은 모두 인연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나와 더불어 한 생명, 또 다양성속에 모두 평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나라는 이 상을 앞세우면서 세상의 평등과 평화를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등불을 밝히는 이유도 우리 마음의 어둠을 소멸시켜서 내 자신을 바로 보고, 또 세상을 바르게 보고자 함입니다. 어둠을 몰아내 세상을 더 밝고 만들고, 바르게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밝게 하자는 의미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의 삼독이 소멸되고 너와 내가 함께 한 생명으로 돌아옵니다. 또 이 한 생명이라는 것은 모두 연결된 생명입니다.

세상은 그대로 꽃밭입니다. 빈부귀천을 떠나 모두가 저마다 아름다운 한 송이의 꽃인 것을 자각해야 합니다. 그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세상을 살아갈 때, 시비와 증오가 아닌 상생과 공존이라는 우리의 본래 마음이 솟아나는 법입니다.

불기 2563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해서 우리의 마음에 항상 지혜를 품고 세상에 자비와 평화를 구현해야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 大衆法語 불교의 利他精神

종교의 목적은 사회와 중생을 제도하는 데 있다. 이것은 어느 종교를 막론하고 마찬가지일 것이다.

대승불교에 있어서 상구보리<sup>上求菩提</sup> 하화중생<sup>下化衆生</sup>이라 함도 결국은 이 종교적인 목적을 이루려는 사상이요 가르침이다. 먼저 불타의 진리를 체득하여 자기 자신의 인격을 원만하게 완성시켜서 자신을 제도하고, 그 원만한 인격의 힘으로 사회와 이웃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함으로써 복지사회를 이루는 것이다. 상구보리는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자기제도<sup>自己濟度</sup>의 자리행<sup>自利行</sup>이요 하화중생은 복지사회를 건설하고자 하는 이타행<sup>利他行</sup>인 것이다.

불교에서는 자기 자신의 구제, 즉 최고 경지를 성불 또는 해탈이라고 한다. 이것은 일체의 세간적인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자유자재롭게 됨을 뜻한다. 불교의 8만4천이나 되는 많은 경전도 그 내용을 살펴보면 모두가 한결같이 해탈의 길을 가르치는 법문인 것이다. 물론 이 8만이란 숫자가 수적인 한량<sup>限量</sup>을 의미하는 것이 아

니고, 오히려 그보다 많고 크게 폭을 넓히고 있다.

불교의 진리는 티끌 하나도 버리지 않는 전 우주적인 것이다. 이러한 무한무량<sup>無限無量</sup>의 사상은 대승불교가 싹트면서 현저하게 나타난 것이다. 소승불교에 있어서는 오직 자기 몸 하나밖에 없다. 자기 몸 하나만이 문제의 대상이었고 목적의 대상이었다. 이웃과 주위는 아랑곳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대승불교사상에 있어서는 일미진중<sup>一微塵中</sup>에도 함시방<sup>含十方</sup>이라고 한다. 즉 먼지 하나, 물 한 방울 속에도 모든 진리가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한 티끌도 버릴 수 없는 것이다.

부처님께서서는 시방<sup>十方</sup>의 모든 중생이 모두 불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다. 불성을 가지고 있다함은 해탈의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여기에 말하는 중생이란 물론 인간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인간뿐만 아니라 짐승과 곤충까지라도 하나도 빠짐없이 불성을 지니고 있다는 뜻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한 티끌, 한 마리의 미물이라도 경솔하게 대하거나 다루어서는 안 된다. 거기에는 진리, 즉 불법이 들어 있고 한 마리의 짐승이라도 장차 인연을 만나면 ‘부처님’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남을 존중하고 일체를 귀중하게 여기는 대승불교사상은, 나(我)만을 위하고 고집하는 현대인들에게는 크게 주목할 만한 교훈이다. 오늘날의 사회는 인정이 메말라 자기의 이익과 자신의 안락밖에는 아무 것도 모른다. 그저 아만과 아집과 독선밖에는 남아 있는 것이 없다. 흔히 그 이유가 요즈음의 경제난과 식량난에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더 큰 원인은 인간 자신의 내면에 잠

재하고 있는 정신의 결핍에 있는 것이다. 물론 오늘의 인류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세계적인 불안과 공포 속에서 시련을 겪고 있다. 그 결과로 인간의 생활이 어려워지고 인정이 메말라 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종교의 사명, 아니 불교의 이타(利他)사상은 이런 때 발휘되어야 한다. 오늘날 과학문명과 기계문명, 그리고 의학기술은 고도로 발달되어 있다. 또한 물질 만능도 더할 수 없이 발달되어 있다. 그러나 그것들이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통이나 불안을 제거해 주지는 못하고 있다. 역시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문제가 더 중요하고, 외면적인 해결이 아니라 내면적인 해결이 있어야만 오늘의 사회, 현대의 중생은 불안과 고통에서 해소될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불교인은 하루빨리 불타의 진리를 체득하고 원만한 인격을 완성한 뒤(自利) 그 인격의 힘으로 이 사회를 불국토화(利他) 하는 데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 오대산 월정사 여/름/수/련/회



**직장인을 위한** 7월 26일 ~ 28일

**1차** 8월 2일 ~ 4일

**2차** 8월 9일 ~ 11일

**3차** 8월 16일 ~ 18일



템플스테이 문의.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오대산로 374-8번지  
T. 033-339-6606~7 <http://woljeongsa.org/templestay>

## 상원사문수보살과 선재동자

자현 스님

### ① 문수전의 문수동자와 문수보살상

상원사의 문수전에는 문수동자상과 문수보살상이 나란히 모셔져 있다. 동자상은 아이라는 의미이며 보살상은 어른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같은 문수의 두 시점을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재미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것은, 두 상의 얼굴 생김새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다. 아이와 성년의 차이라면 생김새가 유사해야 할 것인데 말이다. 이는 두 문수상이 만들어진 시대와 배경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다. 즉 현재는 함께 모셔져 있지만, 본래는 그렇지 않았다는 말이다. 실제로 문수동자상은 1466년 조성된 것인 반면, 문수보살상은 1661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양자 사이에는 약 200년의 시차가 존재한다. 그 200년의 세월만큼이나 두 상의 모습에도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문수동자상은 어린아이를 모델로 했기 때문에 머리에 쌍갈래의 상투를 하고 있다. 쌍갈래 상투머리를 땅을 총總자에 붙 각角자를 써서 총각總角이라고 한다. 소의 뿔처럼 땅은 머리라는 의미이다.

머리를 묶는 방식으로 결혼의 유무를 표현하는 것은, 세계의 곳곳에서

확인되는 인류의 보편적인 풍습 중 하나이다. 이는 결혼대상자를 한 눈에 파악해서, 불필요한 에너지소모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조선 역시 총각과 상투로 남성의 결혼유무를 표현했고, 여성은 땀과 엮음 머리로 혼인관계가 한 눈에 드러날 수 있도록 했다.

이런 점에서 문수동자상은 분명히 어린아이의 모습을 한 동자상임에 분명하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동자상에 수염을 그려냈다는 점이다. 수염은 어른에 대한 표현이다. 아무리 존상이라지만 조선시대의 관점에서는 어린아이를 모시고 있다는 것이 웬지 거북했던 모양이다. 그렇다보니 누군가가 수염을 그려 넣은 것이다. 당시의 이와 같은 발상이 참으로 재미있다.

문수보살상은 일반적인 보살상처럼, 머리에는 화려한 보관을 쓰고 다양한 장신구를 한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다. 또 손에는 연꽃을 들고 있는데 이는 번뇌를 여윈 청정함의 상징이다.

### ② 선재동자상과 제석천왕상 帝釋天王像

문수전의 문수동자상과 문수보살상 외에, 같은 공간 안의 주변에는 선재동자상이 모셔져 있다. 선재동자가 문수보살과 관련해서 구도의 길을 나서고 있다는 점에서, 선재동자와 문수보살의 친연관계는 성립한다. 그러나 선재동자가 목조로 조각되어 표현되는 경우는 현존하는 다른 예가 없다. 그러므로 이는 상원사만의 특수한 측면이라고 하겠다. 선재길의 끝인 상원사에서, 선재동자의 모습을 직접 볼 수 있으니 무척이나 흥미롭다고 하겠다.

문수전에는 또 제석천왕상도 모셔져 있는데, 이 역시 다른 사찰에서는 볼 수 없는 상원사만의 특징이다. 제석천상이 모셔진 곳은 신중단 神衆壇 즉 신들을 모신 공간이다. 보통 신중단은 신들을 그림(탱화)으로 그려서

모시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런데 문수전에서는 이 신중단의 리더인 제석천, 즉 하느님을 목조각으로 형상화해 놓은 것이다. 이 상은 1645년에 조성된 것인데, 특징적인 회소성으로 인하여 현재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 160호로 지정되어 있다.

### ③ 근현대 오대산의 정신, 한암·탄허스님

문수전의 바로 옆에는 일종의 작은 조사당이 배치되어 있다. 이곳은 근현대 한국불교의 최고고승인 한암스님과 탄허스님을 기리는 추모공간이다. 실제로 이분들은 월정사의 부도밭이 아닌 상원사 앞의 부도밭에 별도로 모셔져 있다. 부도밭이 추모공간이라는 점에서, 보통 사람들의 눈에는 잘 띄지 않는 공간에 위치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나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가끔은 들려서 참배하는 것이 타당하다. 특히 이곳에는 한암·탄허스님 외에도 이분들의 적통을 이은 만화스님까지 모셔져 있어, 근현대 상원사의 삼화상 구조를 연출하고 있다. 이 분들은 조선초 상원사에 계셨던 신미·수미·혜각의 삼화상과 비견되는, 근현대의 삼화상이라고 이를만하다.

**자현스님** 대한불교조계종 월정사 교무국장, 조계종 교육이사리, 불교신문 논설위원, 울산연평선원 원장, 월정사부산포교원 원장,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부 교수 등을 맡고 있다. 율장, 건축, 선불교, 한국 고대사 연구로 4개의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학진 등재지에 120여 편의 논문을 수록했고, 30여 권의 저서를 펴냈다.



## 영월 보덕사 성보문화재 특별전

• • •

대한불교조계종 제4교구 본사 월정사는 월정사성보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영월 보덕사 성보문화재 특별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특별전에서는 1990년에 유출된 후 최근 환수한 보덕사 지장시왕도(1786년)를 일반에 최초로 공개합니다.

극락보전의 중단에 모셨던 불화로 추정되는 지장시왕도와 함께 칠성도, 감로도, 산신도 등 보덕사의 다양한 불화와 명부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업경대, 사찰의 역사를 알려주는 발원문 등도 함께 전시하오니 불자님들과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관람 바랍니다.

**[전시명]** “영월 보덕사 성보문화재 특별전”

**[기간]** 2019. 05. 14(화) ~ 6. 30(일)

**[장소]** 월정사성보박물관 기획전시실

**[주최]** 월정사성보박물관, 영월 보덕사

# 자원봉사자 모집

불교에서의 자원봉사란  
남을 돕는 자기희생이 아니라  
자신을 행복으로 이끌고  
집착과 탐욕을 버리게 하는 자기 수행이며,  
나와 상대방(나를 포함한 삼라만상) 모두가  
부처님이 되기 위한 보살행입니다.

- 기 간 : 수시 모집
- 분 야 : 템플스테이  
원주실\_후원 공양보조, 방사 관리, 도량 청소, 안내 등  
증무소\_사무보조 및 기타 업무
- 대 상 : 20세 이상의 신심이 깊고 몸과 마음이 건강하신 분으로  
새벽과 저녁 예불에 반드시 참석 가능하셔야 합니다.
- 문 의 : 템플스테이\_033. 339. 6606~7  
원주실\_033. 339. 6600  
증무소\_033. 339. 6800



출가出家!  
막연하고 아득한,  
나와는 인연因緣이 없을 것 같은 삶의 방식,  
고요한 산사에서의 수행修行은  
나와는 너무 멀게 느껴집니다.  
호흡을 고르게 하고 다시 생각해 볼까요?

.....  
.....  
.....

지금 숨 가쁘게 달려오던 일상을 멈추고  
쉽(休)이 간절히 필요한 순간이라면,  
혹은 뒤를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지혜知慧를 얻고 싶다면,  
월정사 출가학교의 문을 열어 보세요.

나의 등불(自燈明)을 스스로 환하게 밝히고 떠나는 인생 여정에  
든든한 길잡이(法燈明)가 되어줄 것입니다.

## 〈제 54기 출가학교 모집안내〉

- 수행기간 : 2019년 7월 1일 ~ 23일
- 합격발표 : 출가학교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연락
- 입학대상 및 인원 : 17세 ~ 60세, 50명
- 신청 : 월정사 출가학교 홈페이지(<http://woljeongsa.org/chulga>) → 신청하기
- 문의 : 033-339-6777



## 월정사 탑돌이 이야기 ②

### 여섯 마당의 기원

정진희

#### 오른쪽으로 세 바퀴 돌고, 소원을 말해봐 - 우요삼잡(右繞三)

“고대 인도에서는 공경하는 마음을 담아 상대방의 발등에 자신의 이마를 맞대며 존경의 뜻을 표하는 ‘접족례(接足禮)’나 상대를 오른쪽으로 세 바퀴 도는 ‘우요삼잡(右繞三)’ 같은 방법이 상대를 성스럽게 생각하고 존경하는 예경방식이었던다. 부처님께 소원을 빌 때도 그랬지.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시던 시절에 인도 고대 왕국인 마가다국의 왕이 부처님 발에 예배하고 오른쪽으로 세 바퀴를 돌았다는 기록도 있단다. 부처님이 살아계실 때에는 부처님을 가운데에 두고 오른쪽으로 돌았고, 열반하신 후에는 유골을 모신 탑을 중심으로 오른쪽으로 세 바퀴 돌았는데 그 의식이 탑돌이의 유래가 되었다.”

“그럼, 꼭 세 번 돌아야 하는 거예요?”

“아니지~ 더 돌고 싶은 사람들도 있을 테니까!”

“그렇죠? 더 돌면서 소원을 더 말해도 되는 거죠?”

“그럼~! 탑돌이는 3회, 7회, 10회, 100회... 그 이상까지도 이뤄졌지.

《무구정광대다라니경(無垢淨光大陀羅尼經)》이라는 책에는 탑돌이를 할 때 매월 8일, 13일, 14일, 15일에 탑을 오른쪽으로 77회 돌면서 다라니를 77회 읽으라고 알려주기도 했단다. 그러니까, 꼭 횟수가 정해진 건 아닌 게야. 대신 탑이 다치지 않게 정성껏 주위를 돌면서 예불하고, 소원을 말하는 것이 중요했지.”

“그럼 할머니, 월정사 탑돌이는 몇 바퀴를 도는 거예요?”

“호호, 월정사 탑돌이가 몇 바퀴를 도는지 알려면 경내에 서있는 월정사 팔각구층석탑 이야기를 잠깐 해야겠구나.”

#### 천 년 역사의 월정사 팔각구층석탑과 탑돌이

“월정사 팔각구층석탑은 고려시대였던 10세기 말에 만들어졌단다. 지금도 우리나라에 있는 팔각석탑 중에서 가장 높고, 아름다운 탑으로 알려져 있지.

대부분의 절에 세워진 탑들은 평면 사각인데, 월정사 탑은 8각형 평면을 가져 입체적인데다 9층 석탑은 흔하지 않으니까 말이다. 게다가 전에 얘기해준 것처럼 탑 앞에 약왕보살 석상이 있어서 더 아름답지. 그런데 말이다~ 아름다운 건 아름다운 것이고.... 월정사 팔각구층석탑에서 탑돌이를 해온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

“몇 명... 이냐고요? 음.... 지금이 21세기 이니까.... 와! 천 년 동안 사람들이 이 탑을 돌면서 소원을 빌었겠네요?”

“그랬겠지!”

“정답! 아무도 모른다!”

“호호호, 정답입니다~!”

“에이~ 할머니두 참, 천년 동안 몇 명이 소원을 빌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몰~래 새벽에 와



월정사 탑돌이

서 혼자 조용히 탑을 돌고 간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럼요~ 아무도 모르죠!”

“맞다, 맞아! 똑똑하구나!”

“이쯤이야 기본이죠~! (으쓱) 그런데요, 할머니, 월정사 탑돌이가 무형 문화재라고 하셨잖아요? 그건 천 년 전 탑돌이 방법하고 똑같아요?”

오대산 할머니가 미소를 지으셨어요.

“지금의 월정사 탑돌이에는 한암漢巖 스님하고 제자 탄허呑虛 스님이 큰 영향을 끼치셨단다. 한암스님은 1925년 봉원사에 계시다가 고향인 오대산으로 오셔서 27년 동안이나 계시면서 불교의식을 바로잡는데 힘쓰셨거든. 이어서 1969년에 만화萬化 스님은 당시 월정사 조실스님이셨던 탄허스님을 모시고 예전의 탑돌이를 고증하고, 체계화 하셨지.

그렇게 만든 월정사탑돌이를 1977년 평창군 민속경연대회와 태백문화제에서 처음 공개하셨단다.”

“우와! 월정사 탑돌이가 지역 축제에 나갔네요?”

“그 뿐인 줄 아니? 그 해 10월에는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강원도 대표로 참가했단다.

월정사 스님들이 고증을 하고, 4인의 스님들이 불교식 음악 ‘범패’와 스님들이 추는 춤 ‘승무’를 공연했지. 북, 쟁과리, 장구, 북으로 연주하는 사물 담당 스님이 4인, 스님 10여 인, 일반 신도 40~50인이 참여한 아주 장엄하고 큰 공연이었던단다.”



1977년 제18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참가 월정사 탑돌이 장면

“강원도 사람들은 엄청 자랑스러웠겠어요!”

“그럼~ 그 이후부터 탑돌이는 강원도 전통 민속놀이로 매해 이어져 왔단다. 월정사 스님들과 평창군민들이 함께 지켜온 전통이었지.”

### 월정사 탑돌이는 어떻게 이뤄지는 거예요?

“〈월정사 탑돌이〉는 총 여섯 마당으로 이루어진단다. 첫 마당은 ‘준비와 입장’이란단다. 상서로운 신들을 절 마당에 모시기 위해서 탑에 오방색 천을 연결해두고, 탑돌이가 끝날 때까지 무탈하기를 기원하지. 그리고



월정사 탑돌이

가능한 범복이나 한복, 또는 마음가짐을 단정히 하는 옷을 입고 준비한단다. 그러면 스님들이 나각, 나발, 범종, 범고를 울리면서 모두 스님들 뒤에 대열을 맞춰 탑 주변으로 모여들지. 사람들 각자가 오늘의 소원을 빌기 위해 적어놓은 경전이나, 연등, 소원지 같은 것을 들고 말이다.

그러면 두 번째 마당이 시작되지. 탑돌이를 진행할 스님이 솔가지에 향탕수를 찍어서 다섯 방향을 향해 뿌린단다. 이때 삼귀의를 하고 공양단에 ‘향·등·꽃·과일·차·쌀’ 여섯 가지 공양물을 올리는 육법공양을 하는데, 우리는 그 때 팔각구층석탑 앞의 약왕보살상처럼 한쪽 무릎을 꿇고 합장하면서 지극한 마음으로 탑에 인사를 올리지. 부처님께 인사하듯 말이다.

세 번째 마당으로 이어지면 본격적인 탑돌이를 위해 석가모니불을 외우며 모두가 줄지어서 탑을 오른쪽으로 3회 돈단다. 안쪽에서는 작은 원을 그리면서 스님과 불자들이 함께 바라무 춤을 춘단다.

탑 주변을 세 번 돌고 나면 네 번째 마당으로 들어가는데, 관세음보살을 외우면서 모두가 줄지어 또 다시 탑을 오른쪽으로 3회 돈단다. 이때에도 안쪽에서는 나비춤(착복무, 着服舞)을 추는데 이때 소원을 기원한단다. 이 과정이 끝나면 다섯 번째 마당으로 탑돌이 노래를 부르며 부처님을 찬양하고, 참회하는 마음을 표현한단다. 이때에는 풍물패가 흥을 돋우고 참여한 스님들과 불자들은 자유롭게 춤을 추면서, 오른쪽으로 돌았다가~ 왼



쪽으로 돌아다가~ 기쁨의 노래와 춤을 몸으로 표현한다. 마지막으로 탑 앞에서 반야심경을 염불하면서 탑을 향해 반배를 하고 줄지어서 자연스럽게 퇴장하면 탑돌이가 끝난다. 마지막으로 즐겁고 장엄하게 끝내기 위해 풍물소리와 흥겨움으로 탑주변이 대화합의 장이 되지.”



“할머니, 스님들하고 불자들하고 춤도 추고 함께 탑을 도는 상상을 하니까... 너무 멋있어요. 저도 하고 싶어요!”

월정사 탑돌이

“그럼 우리 월정사 탑돌이 하러 가볼까?”

\* 탑을 돌면서 가져야 할 마음가짐에 대해 『화엄경』의 「정행품」에서는 다음과 같이 계송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敬心觀塔 當願眾生 諸天及人 所共瞻仰

공경하는 마음으로 탑을 볼 때는 이와 같이 원해야 하네  
모든 하늘과 인간들이 모두 우러러 보았으면

頂禮於塔 當願眾生 一切天人 無能見頂

탑에 머리 숙여 예배할 때는 이와 같이 원해야 하네  
모든 하늘과 인간들이 아무도 꼭대기를 보지 않았으면

右遶於塔 當願眾生 所行無逆 成一切智

탑을 오른 쪽으로 돌 때에는 이와 같이 원해야 하네  
수행함에 거스르지 않아 모든 지혜를 이루었으면

遶塔三匝 當願眾生 勤求佛道 心無懈歇

탑을 세 번 돌 때에는 이와 같이 원해야 하네  
부처님 도 구하기를 부지런히 하여 마음에 나태함과 쉼이 없기를.

- 「정행품」 『대방광불화엄경』(『대정장』 10), p.72상.

### 월정사 탑돌이 (강원도무형문화재 제28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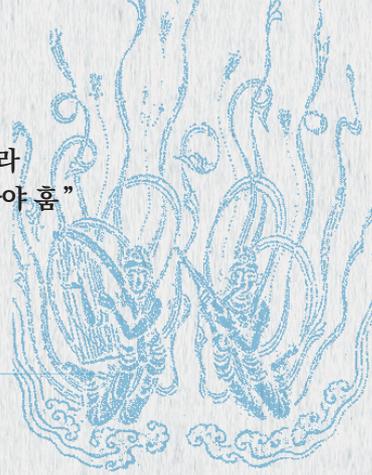
- 매년 부처님오신날과 가을 오대문화축전 연2회 월정사 탑돌이가 진행되고 있다.
- 특히 2011년에는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대보름탑돌이를 성대하게 진행하였고, 동계올림픽 유치가 확정되었을 때에는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탑돌이를 봉행했다.
- 2013년부터 <월정사탑돌이보존회>를 출범했고, 2016년 11월 4일 강원도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 출처

- 금강신문, 「불교의식, 과거속으로 7. 월정사탑돌이」 2016.8.26. (구미래/불교민속연구소장)
- 강원도민일보, 「[오대산과 문화올림픽] ② 오대산 무형문화유산- 월정사 탑돌이」 2014.7.10.
- 이철현 (2014) 월정사 탑돌이의 전승과 현재, 한국선학, 37, 176-207

**정진희** 대학에서 문예창작학을 전공하고, 19년째 방송작가로 일하고 있다. <KBS 다큐공감> <KBS 체인지업 도시탈출> <EBS 요리비전> <EBS 하나뿐인 지구> 등에서 일했고, 책 <대한민국 동네빵집의 비밀>을 출간하기도 했다. 사람 이야기와 음식에 관심이 많은 불자로 중대사자암 삼보일배에 참가하면서 오대산과 인연이 닿았다.

“음 아모카 바이로차나  
 마하무드라 마니 파드마 즈바라  
 프라바를타야 훔”



## 광명정진 철야법회

법회 일자 매월 넷째 주 토요일 밤 8시

법회 장소 오대산 상원사

차량 운행·인솔자

- [서울]** 인솔자\_지혜심 010. 8776. 2552  
1호차 조계사 오전 11시 10분, 2호차 봉은사 낮 12시
- [안양]** 인솔자\_사리자 010. 4017. 7653  
안양 선진병원 9시 40분, 범계역 6번 출구 10시  
농수산물앞 10시 10분, 죽전고속도로경유정거장
- [대구]** 인솔자\_보련화 010. 3827. 5769, 동아쇼핑 앞 오전 9시
- [창원·함안]** 인솔자\_법성화 010. 7317. 2351  
창원 불곡사 5시 30분, 창원역 6시, 함안군 칠원읍 6시 30분
- [부산]** 대경 관음회 인솔자\_청련화 010. 8266. 0012  
1, 2, 3호차 범일동 국민은행 앞 오전 6시 30분  
그린광명회 인솔자\_항상장 010. 8557. 3574, 4호차 부산시청 6시 30분
- [수원]** 인솔자\_대지행 이하운 010-8712-1086  
병점역 7시 출발, 수원역 7시 10분, 북문(장안문) 7시 20분  
KT(동수원) 7시 30분, 영통입구 7시 40분

## 주지 해량스님과 1000일 동안 함께 하는 금강경 독송

일시. 매일 12시 30분 ~ 13시 30분 (초하루와 문수재일에는 법회에서 독송)

장소. 상원사 문수전

25318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오대산로 1211-14  
 종무소 033. 332. 6666, 6060 팩스 033. 333. 5833  
 문수성지 광명도량 오대산 상원사

## 토요 가행정진 법회 양력 초하루법회

법회 일자 매월 첫째 주 토요일 저녁 6시

법회 장소 오대산 중대 사자암/적멸보궁

차량 운행·인솔자

- [서울]** 수다나해 청해림 010-2056-5508  
조계사 11:30, 봉은사 12:00, 죽전 13:00
- [부산]** 소다나해 수연행 010-3851-1064, 명륜동 지하철역 08:00  
금강정진회 사무실 051-635-7878, 인솔자 차철표 010-2300-7878  
부산진역 6시, 교대 8번 출구 6시 30분, 만덕육교묘 6시 40분

## 적멸보궁 초하루 법회

법회 일자 매월 음력 초하루 오전 9시

법회 장소 오대산 중대 사자암/적멸보궁

차량 운행·인솔자

- [서울·경기]** 한불회(서울) 청아연 010. 2299. 4296  
청량회(분당, 용인수지, 수원) 자연향 010. 5357. 1370  
마야회(분당, 수지, 죽전) 지혜행 010. 5272. 8771

**[강릉]** 강릉신도회 010. 2057. 9748, 택시부 광장 07시

\* 운행시간이나 장소는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각 지역 팀장님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부처님의 지혜 살아 숨쉬는 오대성지 중대사자암 적멸보궁

중대사자암 종무소. 033. 333. 0468, 033. 332. 7881

25318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오대산로 1211-80



# 화엄오만진신 조성 불사 권선문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정각을 얻으신 직후, 3·7일 동안 깨침의 정수를 말씀하신 것이 『화엄경』입니다. 그러나 그 깨달음이 너무나 위대하고 경지가 높았기 때문에 중생들은 알아듣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아함경(아가마-阿伽摩: agama)부터 차례로 단계를 높여가며 가르침을 설 해주시게 되는데 마치 현대의 4차 산업을 얘기해 주기 위해, 초등학교부터 대학원까지 교육을 시켜주는 것과 같습니다.

신라 선덕여왕 때 국사 급에 해당하는 대국통 자장율사께서는 중국 산서성 오대산에서 642년 문수보살을 친견하셨습니다. 이때 부처님의 사리와 가사 등의 성물(聖物)과 『화엄경』의 가르침을 전수 받은 뒤, 신라의 동북방에도 문수 성지가 있으니 찾으라는 부촉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귀국 후 신라에서 찾아진 곳이 바로 평창의 오대산입니다. 자장율사는 오대산 중대에 부처님의 뇌사리를 봉안하고, 월정사의 기틀을 확립합니다.

이후 태종무열왕 즉 김춘추의 손자인 제31대 신문왕이 즉위하게 되는데, 형제들 간에 왕위 계승과 관련된 다툼이 발생합니다. 이런 상황이 싫어서 덕이 있는 왕자 보천과 효명 형제는 멀리 오대산으로 은거하여 수행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때 이들은 오대산 중대에서 1만 문수보살을 친견하는 이적을 경험합니다. 이후 차례로 동대에서는 1만 관세음보살,

남대에서는 1만 지장보살, 서대에서는 1만 대세지보살, 북대에서는 1만 미륵보살을 빚게 됩니다. 보천과 효명은 이들 보살님께 차 공양을 올리고 일일이 절하며 예배해 모십니다.

이런 과정에서 경주에서는 신문왕의 장남인 효소왕이 실정하여, 재위 10년 만에 폐위되고 새로운 군주를 물색하게 됩니다. 이때 효명의 덕행과 불보살의 가피가 알려져 귀족의 추대로 등극하는데, 이분이 바로 통일신라 최대의 성군으로 평가되는 제33대 성덕대왕입니다. 성덕대왕 하면 아들과 손자가 대왕의 덕을 기려 주조한 성덕대왕신종, 즉 에밀레종으로 유명합니다. 또 성덕대왕의 아들로는 중국불교에서 지장보살의 화신으로 평가받는 김지장(김교각)과 사천성 정중선파의 시조이자 중국에서 500나한 중 한 분으로 평가되는 정중무상스님이 있습니다.

신라와 불교의 황금기를 구가한 성덕왕은, 경주를 인구 100만의 세계 10대 도시로 성장시키는 놀랄만한 위업을 달성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왕이 되고 신라가 번영을 구가하는 것이 오대산의 불보살님의 가피라고 생각하여, 재위 23년째가 되는 724년 친히 행차하여 상원사를 창건하고 경제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날의 오대산과 월정사의 대체(臺體)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오대산불교의 발전은 국가를 흥성시키는 동시에, 오대산 5만 불보살님의 존재는 개인의 성공과 행복에 더 없는 공덕과 복덕의 가피가 되기에 충분합니다. 이는 이성계가 오대산 중대 사자암을 자신의 월찰로 삼고, 상원사를 수륙재 사찰로 지정한 것을 통해서 분명해집니다. 『성종실록』 권261의 1492년 기록에는 “오대산과 금강산에 사찰이 매우 많고, 승려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다.”는 언급이 있습니다. 즉 조선 초기까

지도 오대산은 금강산과 더불어 최고의 기도 도량으로 평가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이런 유서 깊은 성지인 오대산 월정사에서, 『화엄경』에 입각한 5만 보살의 모습을 나무로 조각하여 모시는 대불사를 단행합니다. 월정사의 적광전은 『삼국유사』 「오류성증」조에서, 신라 최고의 명당으로 평해진 유일한 장소입니다. 성덕대왕이 발복하고, 『삼국유사』에서 최고의 길지로 평가된 적광전에 모셔지는 5만 불보살님의 조성에 동참하여, 나와 가족의 성공과 행복의 길을 활짝 열어야 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눈이 먼 제자 아나울의 가사를 기워주시면서, ‘복은 아무리 많아도 부족한 것’이라고 하신 말씀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작은 보시로 큰 공덕을 만들어, 다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 거친 파도를 이겨내고 반드시 성취되는 가피와 위업을 달성해야만 할 것입니다. 5만 불보살의 위신력과 함께 하면 여러분의 삶은 언제나 행복으로 충만할 것이며, 작은 보시도 큰 결실을 맺게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동참 금액**

- 1인 : 10만원
- 108 설판 동참금(가족) : 500만원  
(설판 제자 탕화에 이름을 올려 드립니다.)

**회향 법회**

2022년 10월

**동참 문의**

원주실 033. 339. 6600~1

## 제16회 오대산 걷기명상축제

불기2563(2019)년 5월 5일(일) 오전 10시 <2019 어린이 날, 가족과 함께!> 제16회 오대산 걷기 명상 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월정사전나무숲길까지 총무국장 인광스님의 지도로 걷기 명상을 하였으며, 전나무숲길에서는 어린이들이 신나고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체험 한마당이 펼쳐졌습니다. 선재길 회사거리에 설치된 특설무대에서는 힐링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콘서트에 앞서 지역청소년 및 소년, 소녀 가장을 초청해 장학금을 전달하였습니다.

오대산 걷기명상축제



# 불기2563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

불기2563(2019)년 5월 12일(일) 오전 10시 30분, 월정사에 서는 주지 퇴우 정념 스님과 소임자 및 사증 스님, 불자 2,500여 명과 한왕기 평창군수, 장문혁 평창군의회 의장, 김진석 강원도의회 의원, 김은식 평창경찰서장, 김정희 평창소방서장 등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봉축법요식을 봉행하였습니다.

## 봉축법요식



## 봉축법요식



불기2563(2019)년 5월 12일(일) 오후 12시 30분, 월정사 특설무대에서는 부처님오신날 봉축음악회와 체험한마당이 진행되었습니다.

봉축음악회는 소리무용단과 광명옥 보살님이 공연하였으며, 체험한마당은 월정사복지재단, 월정사정보박물관, 한강시원지체협관, 오대산국립공원, 불교청년회, 문수청소년회, 템플스테이에서 월정사를 찾은 불자님들과 방문객을 대상으로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하여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월정사 탐돌이는 우천으로 인해 취소되었습니다.

## 봉축음악회



## 체험한마당



Odaesan Meditation Village  
오대산 자연명상마을

# 명상법회

오대산 자연명상마을 음취OMV는  
내가 나의 삶에 선물하는 자유로운 플렉스이며,  
명상으로 편안하고 자연의 기운으로 건강해지는  
Healing Stay입니다.

숲에서 탄생하여 하늘로 피어오르는 고요한 땅,  
사람과 자연이 바람의 빛깔로 모인 오대산 자연명상마을에서  
몸과 말과 생각으로 물든 모든 습관들을 지우고  
행복을 담아낼 귀한 인연을 명상으로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쪽의 맑은 기운을 품은, 숲을 닮은 수행자!  
햇빛처럼 빛나는 바로 당신입니다.



**입재.** 2019년 6월 8일 토요일 15시 **회향.** 2019년 6월 9일 일요일 12시  
**장소.** 오대산 자연명상마을(OMV)  
**프로그램.** 경청명상, 자애명상, 견기명상, 치유요가  
**동참비.** 1인 5만원(2인 1실 사용)  
**문의.** 오대산 자연명상마을 033. 333. 6500 / 월정사 중무소 033. 339. 6800

## 신묘장구대다라니 철야정진 법회

신묘장구대다라니는 천수경에 나오는 가장 긴 진언으로  
삼보와 관세음보살님에게 귀의하여  
악업을 그치고 탐욕과 노여움, 어리석음의 삼독을  
소멸하여 가피를 이루게 할 것입니다.

신묘장구대다라니 철야정진법회에 동참하시어  
오만불보살님의 가피를 몸소 체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일시.** 佛紀2563(2019)년 6월 15일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오후 8시)  
**장소.** 월정사 대법륜전  
**기도비.** 30,000원(원주실)  
**문의.** 월정사 포교국 033. 339. 6616, 010-2019-5846(휴대전화)

토요일 (오후)	08:00~09:00	주지스님 법문
	09:00~09:10	철야정진 준비
	09:10~10:20	신묘장구대다라니
	10:20~10:30	휴식
	10:30~11:40	신묘장구대다라니
	11:40~00:20	간식·휴식
일요일 (오전)	00:20~00:50	묵언경행 정진
	00:50~01:00	휴식
	01:00~02:10	신묘장구대다라니
	02:10~02:20	휴식
	02:20~03:40	신묘장구대다라니
	04:30~05:00	새벽예불

**버스운행.** 서울 - 월정사 : 조계사 앞 오후 1시 출발  
월정사 - 서울 : 월정사 주차장 앞 오전 5시 10분 출발

# 사증소식

- 5월 1일(월)** 적광전에서 한암당 증원대종사 144주년 탄신다례재를 봉행하였습니다.
- 5월 5일(일)** 제16회 오대산 걷기명상 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 5월 9일(목)** 적광전에서 신중재일 화엄법회를 봉행하였습니다.
- 5월 12일(일)** 불기2563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봉축법요식을 봉행하였습니다.
- 5월 14일(화)** 월정사성보박물관에서 영월 보덕사 성보문화재 특별전 개막식을 봉행하였습니다.
- 5월 18일(토)** 대법륜전에서 신묘장구대다라니 철야정진법회를 봉행하였습니다.
- 5월 19일(일)** 적광전에서 기해년 하안거 결제 법요식을 봉행하였습니다.
- 5월 25일(토)** 적광전에서 오대광명포살법회를 봉행하였습니다.
- 5월 28일(화)** 적광전에서 탄허대종사 36주기 추모다례재를 봉행하였습니다.  
대법륜전에서 월정사에 결계신고를 한 스님들이 참석하여 2563(2019)년 하안거 포살법회를 봉행하였습니다.

\* 주소 변경, 배달 사고 등 「오대산향기」에 대한 문의 사항과 특별히 법보시를 하고 싶은 단체, 이웃이 있으시면 오대산 향기 편집실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 오대산향기 법보시안내

- 정기구독 법보시 금액** 1년 회원 : 2만 원 / 10년 회원 : 20만 원
- 정기구독 법보시 신청** 월간 오대산 향기 편집실  
전화. 033) 339-6800 / Fax. 033) 332-6915  
(우)25318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오대산로 374-8 월정사 종무소  
**홈페이지.** <http://www.woljeongsa.org>
- 법보시 신청 계좌번호** 농협 355-0019-0684-13 (예금주 : 월정사)
- 법보시 동참 불자님** 10년 회원 : 정상호, 변청미님      2년 회원 : 김인경님  
1년 회원 : 김정자, 안철성, 홍재현, 정숙경, 장미영, 함영민,  
김용희, 김소영님

## 6월

佛紀 2563(2019)년

# 오대산 월정사 주요행사

### | 오대산 적멸보궁 | ☎ 033. 333. 0468

6월 3일(월) 초하루법회

### | 월정사 | ☎ 033. 339. 6600

- 6월 7일(금) 신중재일 화엄법회, 오롯이 바라보기
- 6월 15일(토) 신묘장구대다라니 철야정진법회(대법륜전)
- 6월 22일(토) 오대광명 포살법회(대법륜전 14:00)  
4교구 유치원 및 어린이집 교사 연수
- 6월 28일(금) 백중기도 입재(적광전)

### | 상원사 | ☎ 033. 332. 6666

- 6월 3일(월) 초하루법회
- 6월 6일(목) 문수재일 지혜법회
- 6월 22일(토) 광명정진 철야법회

### | 중대사자암 | ☎ 033. 333. 4729

- 6월 1일(토) 토요일행정진법회
- 6월 2일(목) 봉찬기도 회향
- 6월 3일(월) 초하루법회, 하안거 무장무애기도 입재
- 6월 29일(토) 백중기도 입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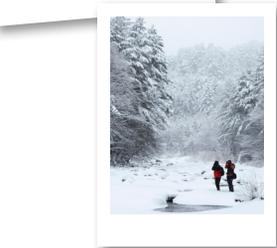
### | 오대산 자연명상마을 OMV | ☎ 033. 333. 6500

- 6월 8일(토) 명상법회
- 6월 15일(토) 함께 걸어요



## 매월 음력 5일, 신중재일 화엄법회에 참석합시다

- | 일 시 | 佛紀2563(2019)년 6월 7일(금) 오전 9시 30분
- | 장 소 | 월정사 적광전
- | 기도비 | 30,000원
- | 문 의 | 원주실 (033) 339 - 6600 ~ 1



## 제15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 오대산 전국 디지털 사진 공모전

- 주제** 오대산의 길  
길 없는 길, 길에서 나를 만나다
- 기간** 2019년 5월 5일(일) ~ 9월 9일(월)
- 장소** 오대산 (선재길, 전나무 숲길, 암자 길 등)
- 참가 자격** 제한 없음
- 출품수** 1인 3점까지
- 출품 규격** 500만 화소 이상 파일 형태(JPEG, BMP, GIF, PNG, 인터넷으로 제출), 스마트폰 촬영 사진 가능
- 사진 등록** 웹하드([www.webhard.co.kr](http://www.webhard.co.kr))  
ID : woljeongsa2 / password : 2019
- 참가비** 없음
- 접수 마감** 2019년 9월 9일 월요일
- 입상작 발표** 2019년 9월 30일 월요일  
강원도민일보 지상 및 홈페이지([www.kado.net](http://www.kado.net))  
월정사 홈페이지([www.woljeong.org](http://www.woljeong.org))
- 시상 내역** 대상 - 상장 및 상금 200만원  
금상 - 상장 및 상금 100만원  
은상 - 상장 및 상금 50만원  
동상 - 상장 및 상금 30만원  
입선 - 상장 및 기념품
- 문의** 월정사 (☎ 033-339-6800)  
강원도민일보사 사진부 및 평창지사  
(☎ 033-260-9280~3, 033-332-3388)

